

“침몰 中유람선 세월호처럼 수차례 개조”

사고 발생 나흘째 승객 435명 생사 불투명 객실 등 설계변경까지 무리한 운항도 원인

중국 당국은 양쯔(揚子)강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사흘째인 3일 중국 당국이 수색 작업을 가속하며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가운데 사고 당일 선장이 기상악화 경고에도 무리한 운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건조 이후 수차례 개조와 설계 변경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한국의 세월호 참사와 닮은 꼴 사고로 지적되고 있다.

◇생존자 구조에 총력=중국 당국은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이날 오후 40시간을 맞게 되는 가운데 선체 내부 생존자 구조에 주력하고 있다고 중국 신화망(新華網) 등이 전했다.



중국 양쯔강 중류 후베이성 쟈리현 부근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지 사흘째인 3일(현지시간) 선체에 올라간 구조대원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 당국이 수색작업을 가속하며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희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지휘하고 있는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전날 밤 회의에서 “조그만 희망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명 구조에 나서달라”며 군부대와 지방 당국 인력이 밤샘 구조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당국은 사고 유람선인 ‘동광즈싱’(東方之星·동방의 별)호에 탄 458명 가운데 전날까지 14명이 배에서 탈출하거나 구조됐고 7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교통운수부는 승선자 수를 458명에서 2명이 감소한 456명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당국은 침몰 직후 배를 버리고 밖으로 헤엄쳐 나온 선장과 기관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기상악화 속 무리한 운항=침몰한 유람선 동광즈싱(東方之星·동방의 별)호의 선장은 강력한 회오리바람에 휘둘러 배

선장이 수차례의 거듭된 기상악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봉황망 보도에 따르면 사고간 난 1일 기상국은 오전 8시30분부터 사고발생 30분전까지 7차례 황색경고를 발령했다. 난징(南京)에서 동광즈싱과 함께 출발한 다른 한 배는 기상국의 경고를 받아들여 후베이(湖北)성 적벽(赤壁)에서 배를 정박했다. 같은 항로에 있던 다른 선박의 한 관계자는 강바람이 심해 운항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동광즈싱의 선장과 기관장은 현재 공안이 신병을 확보해 사고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장은 강력한 회오리바람에 휘둘러 배

가 순식간에 전복됐다고 말했다.

◇사고 유람선, 수차례 개조와 설계변경=침몰한 유람선이 1994년 건조 이후 수차례 개조돼 구조와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중국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 온라인 매체인 핑파이(澎湃)신문은 사고 선박인 ‘동광즈싱’호가 유람선 관광시장이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수차례 개조됐다고 보도했다.

1994년 2월 건조된 이 선박은 몇번의 개조로 배 외곽의 방화벽과 객실 분포 등이 원래의 설계도와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고 핑파이신문은 전했다. 특히 건조 당시 설계자가 아닌 다른 업체가 개조를 맡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구조변경

탓에 배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가 원래 2m에서 2.2m로 늘어났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업계의 한 인사는 “이 선박의 구조는 개조 후에 이미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선박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건조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 동광(東方)위성TV는 이 선박의 현재 길이는 76.5m, 폭은 11m이지만 초기 설계는 약 60m 길이로 되어 건조하는 과정에서 15m 이상 길이가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 이번 침몰 사고가 한국의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거리 500km...北 전역 사정권 국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처음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한 이후 2년8개월여 만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최근 개발에 성공한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 이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거리는 800km 이하로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오늘 처음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이른바 올해 말부터 육군미사일사령부 예하 기지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격파하는 ‘킬 체인’의 핵심전력이다.

정확도가 우수한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은 1t이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800km의 탄도미사일은 개발이 상당 수준 진척됐으며 최근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미사일의 비행자세와 제어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사거리 500km 이상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800km를 개발 중인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1t 미만) 기술을 상당수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사거리 300~550km의 스킵드 미사일, 1000~1300km의 노동미사일, 3000km의 무수단미사일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거리 1만3천km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이다.

또 이날 안흥시험장에서는 ‘철매-II’ 개량형 지대공유도무기도 첫 시험발사했다.

‘철매-II’의 기본형은 중고도(10~15km)를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유도무기이다. 그러나 군은 이 기본형을 국내 독자기술로 개량해 15km 이상 고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이용한다.

中, ‘텐안먼 사태’ 26주년 대비 반체제인사 집중 단속

중국 당국이 ‘텐안먼(天安門) 사태 26주년(4일)을 앞두고 반체제인사와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공안 당국은 최근 텐안먼 사태 관련 추모 행사와 세미나 등을 금지하면서 반체제 인사 등 수 십명에 대해 가택연금이나 ‘강제 여행’ 조치를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강제여행 조치된 반체제인사에는 텐안먼 시위 당시 강경 진압에 반대하다가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 전 공산당 총서기의 비서를 지낸 바오통(82)도 포함됐다고

RFA는 전했다. 바오통의 부인 장쯔오(蔣素素)는 지난달 30일 공안 안보 요원들이 베이징 자택에 찾아와 바오통을 데리고 여행에 나섰다고 전했다.

베이징에선 텐안먼 유가족 모임인 ‘텐안먼 어머니회’ 핵심 회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텐안먼 어머니회’는 텐안먼 사태 26주년을 이틀 앞둔 2일 추모문에서 현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가 저지른 죄과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반체제인사들과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가택연금과 강제 여행은 베이징 외에 다른 지방에서도 이어졌다.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의 반체제인사 마샤오밍(馬曉明)은 RF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권 활동가 양하이(楊海)가 공안원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다른 인사들도 가택연금 조치 등으로 외부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후난(湖南)성 인권수호자’로 불리는 어우양징화(歐陽經華)는 장사(長沙)로 여행했고 인권 운동가 리진(李費)도 공안에 붙잡혔다.

광시(廣西)장족자치구 구이린(桂林) 공안은 텐안먼 시위에 참여했던 왕더방(王德邦)을 강제여행 시켰고 주하이(珠海)의 인권 활동가 쟈장화(甄江華)는 가택연금과 강제 여행 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 강요받기도 했다. 텐안먼 추모 행사는 중국에선 금지됐지만 세계 곳곳에서 개최됐거나 26주년 당일인 4일 거행될 예정이라고 RFA는 전했다.

대만에선 2일 대만학생회 주최로 26주년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에는 텐안먼 시위의 주역인 왕단(王丹)이 참가했다.

태국에 있는 중국 반체제단체 지지부들도 이날 진상 공개, 희생자 보상,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텐안먼 사태를 잊지말자고 다짐했다.

美 상원, ‘자유법’ 통과 도감청 못한다

앞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로 해운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법원 허가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원안 처리했다.

통신기록의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이 지난 1일(0시)에 만료됐으나, 대체법안 자유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다.

미국자유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통신 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은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휴대전화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도 건건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임의로 감청해 오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며 “법안을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은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휴대전화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도 건건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임의로 감청해 오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며 “법안을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